



오늘의 말씀 - 토 (출 3:13-22)

13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16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17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18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19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21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본문 이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나를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내가 내 손을 들어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 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적용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

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이름은 곧 그의 정체성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큼니다.

이름을 묻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스스로 있는 자,”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두 가지 이름이었습니다. 모세는 밑도 끝도 없는 그 정도 대답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분석하고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요,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서는, 조상들이 삶 속에서 경험으로 알았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모세 자신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 알아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경험하며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애굽에서 학대 받는 것을 보시고, 애굽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로 작정하신 분이셨습니다 (17). 그리고 그 이

스라엘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고 (18), 애굽 왕을 여러 가지 이적으로 단단히 몰아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것이며,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실 분이셨습니다 (21).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며, 동역자로 세워나가십니다. 모세를 선택하셨듯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듯 우리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가슴에 영적 호기심의 불이 타고 있는 당신의 사람을 찾으셔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다시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 알려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
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아가페회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힘을 더하여주옵소
서.

(주일 말씀: 눅 24:28-35 엠마오에서 생긴 일)